

# 총독부 간호사...일제 폭거에 '독립 만세'를 외치다

[3 · 1운동 백년과 여성]

조선총독부 의원 산부인과 소속 간호사  
3·1운동 부상자 치료하며 민족의식 키워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다”  
간호사 독립운동단체 ‘간우회’도 조직  
석방 후 병원 돌아왔지만 망명길 올라



박자혜

명칭 변경 후 초대 위원장은 일본 육군 군의관이 임명됐다. 주요 임직원 역시 모두 일본인이었다. 1910년 전체 인원 67명 중 60명이 일본인이었고, 1911년에는 전체 88명 중 84명이, 1912년에는 130명 중 98명이 일본 사람이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본인은 전

체 의원 중 8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1919년에는 일본인이 95명, 한국인이 18명이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해 3월일은 박자혜의 가슴 속에 '독립의 꿈'을 움트게 했다. 수많은 조선인 부상자가 반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남녀노소 조선인이 독립을 위해 피 흘리는 모습은 그녀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됐다. “일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 박자혜는 그날을 기로로 일제의 간호사에서 대한 독립 운동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3·1운동 이후 독립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이필주 목사와 연계해 간호사 독립운동단체인 ‘간우회’를 조직했다.

박자혜는 의원 내에서 뜻을 같이 할 동지를 모았다. 수많은 조선인 환자를 치료하며 민족의 울분을 함

게 터뜨린 조선 의료인들이었다. 그녀는 이들에게 동맹 과업 등으로 일제에 항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원 내에서 '열변가'로 유명한 피부과 김형익 의사와 함께 비밀리에 연락을 이어가며 조직적 움직임을 도모했다.

외과 신창엽은 3월5일 시작했고 산부인과 김달환과 연구과 김영오는 각각 3월24일과 3월26일부터 무단 휴무를 감행했다. 내과 김용채도 3월28일 말없이 의원에 나가지 않았다. 소아과 권희복도 3월30일 시작했다. 박자혜의 동료 간호사 4명도 모두 시작했다.

당시 일제의 조선인 감시 보고서 '사찰회보'에 따르면 박자혜를 이렇게 평했다. '평소 과격한 언동을 하는 언변이 능한 자', '조선총독부 의원 간호부를 대상으로 독립만세를 외치게 한 주동자'.

결국 일경은 박자혜를 체포했다. 유치소에 수감됐던 그녀는 다행히 당시 총독부원장이 간호사들의 만

세 운동의 책임을 지고 신병을 인수하면서 풀려나게 됐다.

박자혜는 일제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추후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일본의 감시를 피해 망명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만주에서 지내던 지인에게 '길림성에 계신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니는 진보를 쳐달라'고 부탁해 2주간의 휴가를 얻어냈다. 그길로 중국 봉천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박자혜는 봉천에서 석운 우응규를 수소문해 찾아갔다. 그때 우응규는 '동래상회'라는 정미소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응규에게 연경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한 추천서와 노자돈을 받고 즉시 중국 북경 망명길에 올랐다.

1919년 늦은 봄 박자혜는 연경대학 교의예과에 입학하며 오롯이 대한 독립의 열망을 키우게 됐다.

뉴스

## ‘신채호 부인’ 박자혜...고단했던 독립운동 뒷바라지



박자혜(왼쪽)와 남편 신채호의 모습

독립운동가 박자혜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자혜가 신채호를 만난 것은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 의원 간호사를 그만두고 중국 북경 망명길에 오른 뒤였다. 1919년 늦은 봄 연경대학 교의예과에 입학한 그녀는 이듬해 신채호를 만나게 됐다. 후에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다. “검푸르던 북경의 하늘빛도 내날

이 열려져가고 만화방초가 음산한 북국의 산과 들을 장식해주는 봄 4월이었습니. 나는 연경대학에 재학 중이고 당신은 무슨일로 상해에서 북경으로 오셨는지 모르나 어쨌든 나와 당신은 한평생을 같이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채호와의 결혼 생활은 2년 남짓.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신채호와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할 수 없었다. 신채호는 결혼과 함께 “가정

에 등한할 수밖에 없음”을 당부하기도 했다.

1921년 신채호와 박자혜는 첫 아들 수범을 얻었다. 1922년 박자혜가 둘째 아들 두범을 임신하자 신채호는 그녀를 국내로 보냈다. 독립운동만 해오던 신채호로서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채호는 1923년 김원봉과 만나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러나 이궁이에 불 때는 날이 한 달이면 사오 일이라”라고 열악한 상황을 알렸다.

또 “산파소 간판이 걸린 초가집 대문을 넘어 중문턱에 들어서자 부엌도 마루도 없는 한칸 방에 박자혜가 앉아있었다. 부인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기 어려웠다”고도 썼다.

박자혜는 국내에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도왔다. 그녀는 신채호와 연락하며 의열단 활동을 접했고 국내로 들어온 독립 운동가들을 더욱 잘 도울 수 있었다.

중국 연경대 의예과 재학 시절 신채호 만나

신채호 “독립운동으로 가정에 등한할 것”

홀로 귀국해 산파소 운영했지만 궁핍한 삶

신채호 사망에 “모든 희망 끊어졌다” 한탄

의열단 활동에 뛰어들었다. 일제 고위 관료와 친일파 암살. 일제 통치기구 파괴 등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의열단으로서의 삶은 더욱 위험하고 안정적이지 못했다.

박자혜는 홀로 국내에서 산파소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미 일제에 낙인이 찍혀 서술퍼런 감시가 이어졌고 손님이 산파소를 찾는 일도 없었다.

당시 언론은 “열 달이 가야 한 사람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아 산파소 간판을 달아 놓은 것이 도리어 남에

대표적인 사례가 나서주 폭탄 사건이다. 1926년 12월 나석주는 조선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서울행이 처음인 나석주는 사전 조사 등에 박자혜로부터 도움을 받아 거사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1928년에는 신채호가 일경에 체포됐다. 박자혜는 중국 대련 감옥에 있는 신채호에 하소연을 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신채호는 이에 “정 할 수 없으면 고아원에 아이들을 보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풍장사와 참외장



남편 신채호의 유골함을 안고 나오는 박자혜의 모습

사도 마다하지 않으며 첫째 이들을 한성상업학교까지 졸업시켰다. 2살 배기 딸은 영암실조로 품에서 떠나 보내야 했다. 일경들은 아들 수범이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면 책가방을 뒤지는 등 감시와 폭력을 이어 갔지만 박자혜는 굴하지 않았다.

1936년 2월 그런 그녀에게 ‘신채호 뇌일혈로서 의식 불명. 생명 위독’이라는 비보가 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여순으로 갔지만 신채호를 안았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박자혜는 “이제는 모든 희망이 아주 끊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이렇게 기록했다. “당

신은 뜻을 못이루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당신의 원통한 고통은 지금 이국의 광야에서 무엇을 부르짖으며 헤매나이가. 당신의 괴로움과 분함과 설움과 원한을 담은 육체는 작은 성냥 한개로 재로 변하고 말았다. 가신 영혼이나 마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박자혜는 신채호의 시신과 함께 귀국했다. 신채호가 작고한 후 첫째 아들 수범은 학교를 졸업해 해외로 떠났다.

둘째 아들인 두범은 1942년 사망했다. 이후 홀로 셋방에 살던 박자혜는 1943년 49살의 나이에 병으로 조용히 숨을 거뒀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